

# 기간제 교사의 과로사, 교육현장의 문제를 드러낸다

황이링 OSH Link

2020년 11월 24일, 대만 핑둥(屏東)현 류추이(琉球) 중학교의 한 기간제 음악 교사가 기숙사에서 급사했다. 사건 발생 당시 외부에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학교는 해당 교사의 실제 근무 상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 또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인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유가족이 계속해서 진상을 추적하면서 2024년 가오슝 고등행정법원은 해당 기간제 교사의 노동시간이 과로사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동보험국에 기존 처분의 재검토를 명령했다. 이후 노동보험국은 업무상 재해 사망 급여를 지급했으며, 검찰원 또한 올해(2026년) 1월 15일 류추이 중학교와 노동보험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산업 재해 결과를 뒤집었을 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감당해 온 과로 위험을 드러냈다.

## 교원 인력 부족으로 여러 업무를 떠맡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 교사는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중학교 3학년 담임, 주간 생활지도(당번 지도), 방과 후 보충반과 여름방학 보충반 교사를 해야 했으며, 교내 리코더 합주단을 지도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동아리 수업까지 지원했다. 나아가 전국 음악 경연대회 예선을 대비해 집중적인 추가 수업을 해야 했고, 이 외에도 가정 과목 교사와 야간 보습학교 수업까지 겸임하도록 요구받았다. 교사 업무는 출퇴근 기록(타임카드)이 없기에,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도 많은 추가 노동이 발생한다. 학생, 학부모,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장시간 노동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오슝 고등행정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교사의 발병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이미 80시간을 넘었으며, 이는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로 실제 근무 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그의 급사가 장기간의 초과 근무 및 과도한 업무 부담과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은 학교와 노동보험국이 노동시간을 산정하면서 정규 수업 시간만을 반영하고, 수업 준비, 방과 후 지도, 대회 훈련, 학교 간 지원 등 실질적인 노동을 포함하지 않아 근무 시간이 심각하게 과소평가되었으며, 높은 정신적인 노동과 감정노동에 노출되는 교사 업무의 특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일상이 된, 기간제 교사의 ‘예외 상태’

대만도 저출산 추세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향후 정규 교원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정부가 정규 교원 정원을 동결하고, 실제 수업은 기간제 교사로 매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기간제 교사는 담임이나 행정 직무를 맡을 수 없다. 그러나 류추이 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2018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매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이나 행정 업무를 겸임하였으며, 이는 이러한 ‘예외 상태’가 이미 상시 인력 운용 방식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은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즉각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임용 기간이 불안정하고 재계약 여부가 학교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는 근무 시간 인정, 업무 거부, 문제를 제기하기가 극히 어려운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들은 결국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집단이 된다. “조금 더 하는 것”이 재계약, 평가, 인간관계의 암묵적 규칙이 될 때, 과로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 학교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오랫동안 ‘학교는 공장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종종 간과됐다. 감찰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비록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학교는 법적으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정신적 부담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감찰 기관이 개입한 이후에야 관련 법 위반과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은, 학교 현장의 과로 위험이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방치되었음을 보여준다.

기간제 교사는 이미 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노동자이며, 교육 체계에서 소모품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교사의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제도적 과로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